

사회

“○○○ 왕따 시켜라” 거부하자 교실 찾아가 동급생 폭행·난동

흥피에 협박·‘현피’까지... 학교폭력 갈수록 흉포화

신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광주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찾아가 주먹다짐을 벌였다. 이 학생은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행 예고’를 한 뒤 흥기를 들고가 피해 학생과 싸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모 중학교 3년 이모(16)군은 개학 다음날인 지난 3일 오후 2시15분께 흥기를 든 채 등교했다. 한 달 전 인터넷 채팅 도중 “같은 반 친구인 박모(15)군을 왕따 시켜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욕설을 한 신군을 혼내주기 위해서였다.

이군은 지난달 18일 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학날, 각오해라. 3학년○반을 찾아가 갈테니 두고 보라~.”라는 내용을 올리는 등 ‘폭행 예고’를 했었다. 이군은 신군의 교실에 들어가기 직전 진학부장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옷 속에 숨겨둔 흥기를 진학부장 교사에게 빼앗긴 뒤 교장에게 인계됐다. 이군은 교장과 면담 도중 “신군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곧바로 신군의 교실로 향했다. 그러나 이군을 따라나서거나 말리는 교사는 없었다. 이군은 신군의 얼굴을 때렸고, 신군도 맞서 싸웠다. 당시 교실에는 36명의 학생들이 종례 준비를 하고 있

었으며, 담임교사는 시간표를 가지러 진학상담실에 가고 없었다. 이들의 싸움은 담임교사가 교실에 들어오면서 끝이 났다. 분을 사하지 못한 이군은 유리로 된 교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깨트린 뒤, 교실을 나갔으나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북부경찰은 4일 이군을 공동물건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4일 인터넷에서 시비 끝에 중학생들을 불러내 이른바 ‘현피’를 벌인 오모(15·광주 모 고교 1년)군 등 교고생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군 등은 지난 3일 오후 8시에 광주시 북구 일곡동 근린공원으로 광주 모 중학교 3년 양모(15)군을 불러내 얼굴 등을 마구 때려 현의를 받고 있다.

▲현피=‘현실’의 앞글자인 ‘현’(現)과 온라인 게임상에서 다른 게이머(gamer)의 캐릭터를 살해하는 ‘피케이’(PK·Player Kill)의 앞글자인 ‘피’(P)의 합성어. 온라인 상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이 결투를 신청, 실제로 만나 다투는 행위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오군은 이날 양군과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부모에 대한 욕을 하자 ‘결투’ 장소를 정한 뒤 초등학교 친구 5명을 불러내 양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교내 서점. 대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아 전공과 교양 서적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투기·헬기 잇단 추락 노후기종 탓

남양주서 또 조종사 2명 순직

공군 전투기가 지난 2일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추락한 데 이어 또 다시 군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밤 8시14분께 야간 평가 비행 중이던 109 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1대가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의 비닐하우스에 추락했다. 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박정찬(45) 준위와 부조종사 양성운(32) 준위 등 2명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중이었다. 잇단 전투기와 헬기 사고는 30년이 넘는 늙은 장비때문에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어 군 장비 노후화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일 발생한 사고기인 F-5E는 1975년 미국 노드롭사에서 도입했고, F-5F는 1984년 국내 조립 생산됐다.

500MD는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에 따라 2022년까지 전량 도태될 만큼 노후했다. 500MD 헬기는 1970년대 초 닥트린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에 대응해 마련했으며 1976년부터 1988년까지 총 250대가 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운용 중인 500MD는 모두 22년 이상 됐으며 이중 절반은 30년이 넘는 노후 헬기다. /연합스

관공서 공사 현장 돈 뜯음 영광 주간지 대표 등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공공기관과 관공서 공사현장 등을 돌며 돈을 뜯어낸 영광지역 모 주간지 대표 김모(42)씨와 편집국장 이모(여·26)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영광군 흥농을 영광원전 사택 내 체육관 일부가 폭설로 무너지자 ‘부실공사로 붕괴됐다’고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31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무안 한중산단 정치권 로비 의혹 검찰, 사무실 압수수색 서류 확보

무안군 “관계 없는 일”

검찰이 무안기업도시 한중국제산업단지(韓中산단) 개발사업 전담법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서류를 확보했다. 지난 3일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무안군청 기업도시 사무실과 한중산단 개발사업 전담법인인 한중미래도시개발(주) 무안사무소를 찾아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수사관들은 회계서류와 관련 컴퓨터 데이터를 확보했다. 앞서 전남에는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의 서울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의 전신인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

대표를 맡았던 A씨가 한중산단 개발 사업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산단 개발사업은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 그동안 전담해왔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실패한 뒤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지난 1월 법인명을 한중미래도시개발(주)로 변경, 대표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 PF를 재추진 중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수사는 2007년 출자 참여사들간의 불화로 인해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안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메신저 피싱’ 27명에 6천만원 가로채

순천경찰, 30대 검거

순천경찰은 4일 피해자들과 아는 사람인 척 가장해 인터넷 메신저 상에서 송금받아 가로챈 김모(31)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1일께 인터넷 메신저에 최모(여·34)씨 남편의 아이디로 접속해 ‘급하

게 송금해야 한다’며 최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아챘는 등 27명으로부터 6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해킹해 접속한 뒤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된 네티즌들의 아이디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파악한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장애인 불타 숨진 채 발견

4일 오후 3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호텔 인근 밭에서 지적장애 2급 이모(51·북구 우산동)씨가 불에 타 숨져 있는 것을 발주인 최모(73)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 대부분은 불에 탄 상태였으며, 인근에서는 1L 들이 시너통과 라이터 3개, 담배꽂초 등이 발견됐다. /김형호기자 khh@

서울~광주 택시타고 외 “돈 없다”

○삼승적으로 장거리 택시 무임승차 행각을 벌인 20대가 택시기사의 기지로 철창신세.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6·서울시 양천구)씨는 지난 3일 새벽 5시에 서울시 양천구 신정 4거리에서 이모(51)씨의 택시를 타고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까지 오고선 요금(27만 7천원)을 내지않은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일씨는 차에 탑승한 뒤 “광주에 가면 고모가 주기로 했다”고 이씨를 안심시킨 뒤 조선대 병원에서 달아나려 했으나, 이를 눈치챈 이씨가 재빨리 임씨를 차에 태워 경찰서까지 왔다는 것. ○경찰은 임씨가 과거에도 6차례에 걸쳐 택시로 장거리 무임승차를 해왔다는 기록을 발견,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공무원·건설업자에 거액 빌리고 안 갚아”

신안군체육회 사무국장 피소

목포경찰, 배경 수사

현재 신안군체육회 사무국장인 군청 공무원과 지역 건설 하도급업자 등에게 거액을 빌린 뒤 수년이 지나도록 갚지않았다는 고소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건설 하도급업자 이모(45)씨는 지난 2005년 8월 초순께 ‘4개월만 사용한 뒤 이자 3천만원을 주겠다’는 신안군체육회 K 사무국장(48)의 제안에 1억원을 빌려줬으나 5년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며 K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K씨는 신안군 임자면 C장장에게도 같은 금액을 빌려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2억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를 매각처분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공중해 두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군 체육회 사무국장인 K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이유와 배경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PEET / MEET / DEET 전문학원

[약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MDPass 전문학원 출신이 아니라면 합격은 어렵다" 이 한마디를 위해....

<p>심화과정 개강 3월 2일</p> <p>단일명 기술문제 풀이 개강 5월 3일</p> <p>FINAL 마스터문제 풀이 개강 7월 5일</p>	<p>특설1 기초시작반</p> <p>과제물 완성 2010년 8월 시험 대비를 위한 기초·중급·고급 이수필수 EPR 관제에 응시할 선·후속 강사</p> <p>개강: 3월 2일</p>	<p>특설2 기초영어</p> <p>공통영어 2000, 2005년 고득점 취업을 위한 초·중·고·대 2~4급 기초과정 1~4급 고급과정 중·고·대간 특화된 강의</p> <p>개강: 3월 8일</p>	<p>검정원 최고와 강사원의 박철 출강 강의</p> <p>특별초빙</p> <p>과목: 일반생물학</p> <p>[특별초빙]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미생학, 아남미 교수님을 특별 초빙합니다!</p>
--	--	---	---

MDPass 전문학원

광주 263-5453, 430-2200 전주 255-9119
mdpass.co.kr (광주 북구청 맞은편)